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3년 6·7월 제 **128**-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유경춘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코로나 이후’ 대비해 진료 시스템 재정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동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사회 전반이 이전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본원도 안팎으로 진료 체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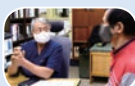
먼저 본원은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 오다 보류됐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지난 3월 업체 두 곳을 재선정한 뒤 4~6월에 걸쳐 구축을 완료했다. 진료팀에서는 앞으로 서너 달 동안 적응기를 거치면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크

1 새로운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이 설치된 영상의학실에서 모니터에 구현된 X선 사진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 약국에서 봉사가 복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3** 치과 진료 모습. **4** 코로나 이후 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2층 진료 대기실 모습.

게 줄이면서 예전보다 훨씬 원활하고 질 높은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5월부터는 종로구 돈의동 쪽 방촌 지역에서 ‘찾아가는 방문 진료 서비스’도 시작했다. 일주일에 두 차례 저녁 한의 진료로 진행되는 이 서비스는 진료 현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보완하거나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숙자 등 빈민층이 많이 모이는 서울역 부근 동자동 지역에서도 방문

128-1호
주요
소식



1

진료 시스템 재정비



5

병원 소식



8

봉사자 코너



14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17

국성회 소식





지난 4월 취임한 신임 고영초 원장(오른쪽)은 연로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저녁 진료보다는 낮 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 오른쪽 아래는 고 원장이 발가락을 다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

진료와 출장진료소 개념의 진료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확보하고 있는 건물 2,3층을 빌려 양방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시의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홍근표 요셉나눔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코로나 이후 일반인의 일상은 점차 빠른 속도로 회복되겠지만, 노숙인 같은 의료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상황을 살펴 보면서 진료진과 협의해 ‘찾아가는 서비스’의 질과 폭을 넓히겠다”고 말하고,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필리핀요셉의원의 경험을 살려 필리핀 안에도 한두 군데 더 진료소 설립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신임 고영초 병원장, 의료진 확충 위해 관심 기울여

이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난 4월 새 병원장으로 취임한 고영초 원장도 두 달 남짓한 기간에 봉사자를 다수 영입하는 등 병원 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원장이 부임 이후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의료봉사자 확충 문제. 현재 본원은 낮 진료(오후 1시~5시)보다 밤 진료(오후 7시~9시) 때 봉사오는 의료진이 많고, 그만큼 진료과도 더 다양하다. 봉사자들이 소속 병원에서 업무를 끝마치고 와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 원장은 “쪽방촌 주민 가운데는 연로한 분들이 많고 장애를 가진 분도 있어 될 수 있으면 밤 시간보다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진료할 수 있도록

의사선생님들을 확보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낮 진료 환자와 밤 진료 환자 수를 현재의 3대7 정도에서 5대5 정도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본원은 1차 진료기관이라서 입원실이 없으나, 고 원장은 소수술실을 설치해 1차 진료에서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나 드레싱 등 외과적 처치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본원에서는 이미 30년 전 신림동 시절에 고 고용복 교수(외과)가 청소년 탈장 수술을 비롯해 가능한 수술을 다수 실시했고, 최근에도 외과봉사의가 혹을 떼어내는 수술을 몇 차례 시행한 바 있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서너 달 적응기 필요

상반기 중 본원 진료 분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이다.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의무기록전산화(EMR) 및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으로 구성된 본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그동안 의원급의 소규모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하다 이번에 종합병원급으로 교체했다. 본원은 형식상 1차 의료기관이나 진료과목이 15개 안팎의 종합병원 규모에다 직접 처방하는 약의 종류도 많고, X선 등 의료영상의 촬영과 전송 빈도 및 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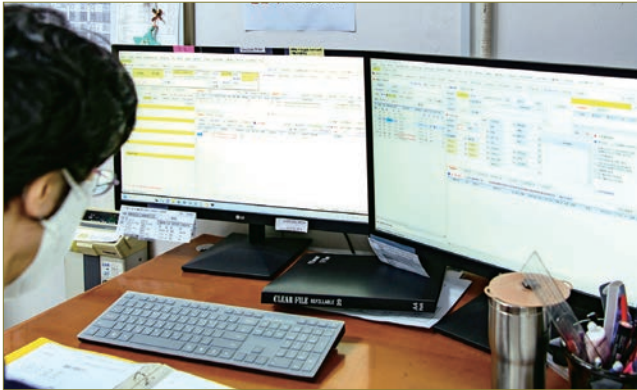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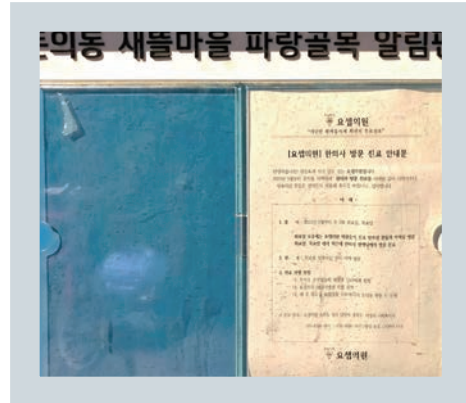


사진 위는 간호사실의 새로운 처방전달시스템(OCS) 화면. 새 시스템은 약 처방 등에서 선택 옵션이 많고 메뉴도 다소 복잡해 의료진이 적응하는데 몇 개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이 본격 도입되기 전 의무기록실 벽에 환자들의 종이 의무기록지가 비치된 모습. 지금은 의무기록을 모두 디지털화해서 예전처럼 1층 의무기록실에서 2층 진료실로 환자 차트를 가지고 오르내리는 일이 없어졌다.

병리 검사율도 높아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이 절실히 필요했었다.

본원 이승덕 행정실장은 “지난 3월 21일 업체 두 곳과 구축 계약을 맺고, 구축 후 5월 15일부터 실제 업무에 적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시스템에 비해 ▲진료 기록에 대한 통계 데이터 확보 가능 ▲처방약 조제 현황 및 진료과 별 환자 대기 현황 표시 가능 ▲전자의무기록(EMR)을 활용한 종이 의무기록지 대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시스템이 그동안 눈에 익었던 화면과 다르게 메뉴도 복잡한 편이어서 적응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고 원장은 “초기에는 다소 간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 달여가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점차 해결돼 가고 있어 석 달 정도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시스템이 완전 정착되면 진료 역량이 크게 증대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게시판에 붙은 본원의 한 의 방문 진료 안내문.

종로 돈의동 쪽방촌에서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시작

5월부터는 서울 종로3가 돈의동 쪽방촌 지역에서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도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40분부터 8시 정도까지 길게는 3시간 정도 환자 집을 찾아다니며 침술 진료를 진행한다. 의료진은 한의 봉사자와 두 명의 본원 직원. 진료 환자 수는 하루 평균 6명 정도로, 70~80대가 주를 이룬다. 하루 10명 진료가 목표이며, 지금까지 60여 명이 진료를 받았다. 봉사자에 따르면, 환자 중에는 침 치료를 받고 경이롭게 호전된 이도 있다.

“심장이 나빠서 약을 많이 복용하는 한 할아버지는 걸을 때 많이 힘들다고 호소했는데, 침 두 번 맞고는 걷기가 아주 수월해졌다고 하시고, 다른 할머니는 무릎에 물이 차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뽑았으나, 침 맞고 한 달



본원 한의 의료봉사자가 돈의동 쪽방촌 가구를 방문해 환자에게 침 치료를 하고 있다.

됐는데 아직 물이 안 찼다고 좋아하시더군요.”

본원에서는 700~800가구가 밀집해 모여있고, 재개발 계획도 없는 이 지역의 상황을 봐서 좀 더 큰 규모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영등포 쪽방촌 방문 간호도 병행

본원 사회사업실에서는 영등포 쪽방촌에서의 도시락 나눔에 더해, 방문 간호를 통해 독거 노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를 5월 중순부터 시작했다. 방문팀은 본원 사회사업실 담당자와 전직 가정간호 봉사자, 미국 소아과의사 면허가 있는 봉사자 등 세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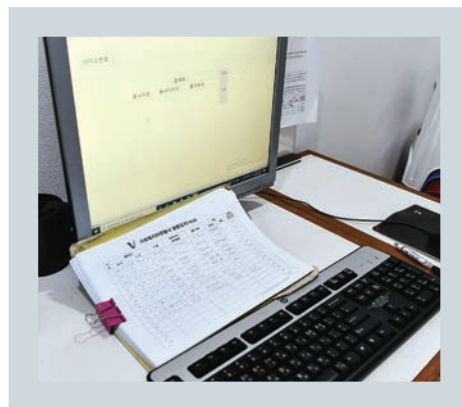


본원은 명절 때 쪽방촌에 작은 선물을 돌리는 외에 외출을 잘 하지 않는 고령자들에게 매주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거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방문 간호도 시작했다.

민광한 사회사업실장 수녀는 “매주 수요일마다 혈압계나 혈당계, 체온계 등 간단한 검진기구를 들고 병원에 오지 못하는 고령 환자들을 찾아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대청소도 해주고 있다”며, “필요하면 의사선생님의 왕진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문 간호 서비스는 봉사에 참여할 가정간호사를 더 확충해 점차 체계화시키고, 앞으로 본원이 서울역 부근에 진료 거점을 마련하면 이 지역 쪽방촌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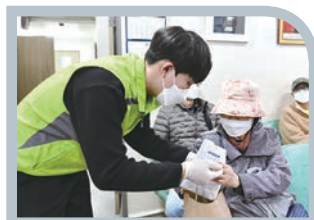
“자원봉사자 참여도 활성화할 예정”

홍 사무총장 신부는 앞으로 본원 업무의 중요한 한 축인 자원봉사의 활성화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실제로 초대 선우 원장 때부터 시작해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날’ 등을 정해 버스 여러 대로 성지 순례나 야외 나들이를 다녀오는 등 자원봉사자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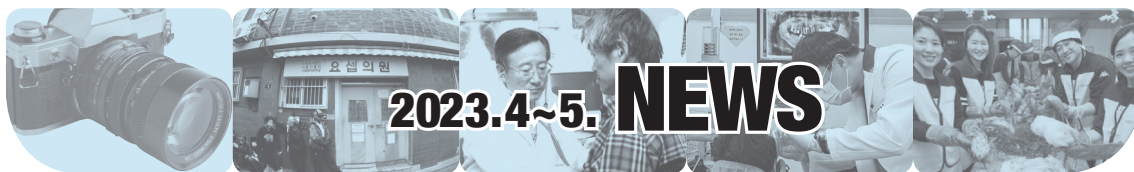
본원 홈페이지를 통한 자원봉사 신청 건수는 지난해와 올해 6월까지 월 10~20명 선으로 꾸준한 상태다. 사진은 자원봉사자 출퇴근 체크 프로그램.

홍 사무총장 신부는 “병원 안에서의 업무는 물론, 상황에 따라 병원 밖 진료 지원 등을 위해 자원봉사 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서울역 부근에서 야간에 방문 진료를 다닐 경우 기존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원봉사팀과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적합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있는 일을 맡기면 봉사를 나온 당사자도 만족감을 느끼고, 병원 일에도 보탬이 된다는 것.



진료를 비롯해 약 처방, 환자 상담, 접수, 나눔 등 본원의 많은 업무에서 자원봉사자는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한다. 본원은 코로나 이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면서 좀 더 체계화된 관리를 모색하고 있다.

홍 사무총장 신부는 “자원봉사자들은 요셉의원을 구성하는 큰 기둥의 하나인 만큼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역할을 주고, 담당 직원은 이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구로3동 꿀벌유치원, 원생들이 모은 쌀 기부

서울 '구로3동 성당' 부설 꿀벌유치원(원장 장종수 마리나 수녀) 원생 88명은 5월 '성모의 달'을 맞아 원생들이 2주 동안 모은 쌀 140kg을 6월 1일 본원에 기탁했다. 장 마리나 원장수녀는 "원생들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밥을 나누다는 생각으로 집에서 식사 때마다 한 줍씩 모은 쌀을 가져와 모았다"고 밝혔다. 기부



서울 구로3동 꿀벌유치원에서 원생들이 지난 5월 2주 동안 한 줍씩 모은 쌀 140kg을 본원에 기증했다.

한 쌀은 본원 직원들이 꿀벌유치원을 방문해 실어온 뒤 무료급식소인 토마스의 집에도 나누어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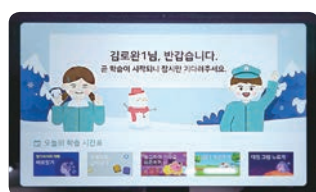
꿀벌유치원 원생들은 최근 해마다 '성모의 달'에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쌀을 모아 본원에 기부하는 한편, 병원을 둘러보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선우경식 초대원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

태블릿 PC용 치매 예방 훈련 프로그램 도입 예정

본원은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기업 로완(대표 한승현)으로부터 디지털 인지훈련 프로그램 '슈퍼브레인'을 탑재한 태블릿 PC 5대를 제공받아 진료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2일 (주)로완 측 교육담당자가 본원을 방문해 도서관에서 직원들에게 '슈퍼브레인'에 대한 소개와 활용법을 소개했다. (주)로완 측 담당자는 "슈퍼브레인"은 신경과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 개발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으로 1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년 간의 임상상을 통해 인지능력 개선 효과와 바이오마커 개선 효과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기업 로완이 6월 22일 본원에 디지털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탑재한 태블릿PC 5대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활용법을 교육했다.



과가 입증됐다"고 전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본원 고영초 원장은 "치매나 혹은 치매 전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인지 훈련을 통해 치매 예방이 가능한 디지털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고, "제공받은 프로그램 활용법을 해당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시킨

다음 인지 장애 환자들을 선별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에 한 명꼴인 약 94만 명이 가볍거나 심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한 치매 치료제는 아직 없다. 본원 환자들 역시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데다 음주 경력이 적지 않아 경도 인지장애와 치매 환자를 선별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진료 순서와 약 처방 순서 표시하는 모니터 설치

본원은 지난 5월 15일 환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2층 진료 대기실과 약국 앞 대기실에 각각 진료 순서와 약 처방 순서(이름)가 표출되는 43인치짜리 대형 모니터 두 대를 설치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환자들을 호명해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언제 자신의 순서가 올지 몰라 환자들의 불편이 컸다.

병원 옆 쪽방촌에 사는 김모 환자(70)는 “귀가 어두워서 이름을 불러도 잘 못 듣는 수가 많았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대기 순서 명단이 같이 있어서 여유를 갖고 전화를 하거나 화장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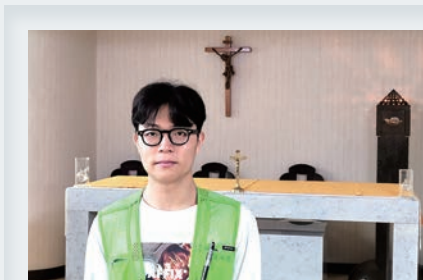
다녀올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같은 모니터링 현황판 설치의 이번에는 통합 의료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본원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2021년 말 1층 접수실에 대기순서표 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환자 서비스 향상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본원은 최근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2층 간호실 앞과 약국 앞에 진료 대기 순서(이름)와 약 처방 순서 명단을 표시하는 대형 모니터 두 대를 설치해 그동안 호명에 의존해야 했던 환자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신학생 현장체험 소감

‘시대의 고통을 마주하며 생각하는 인류애적인 헌신’



김동빈(리벤시오) 서울대교구 신학생

요셉의원 뒤편에 자리한 쪽방촌의 풍경을 처음 봤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전까지 노숙인을 생각하면 서울역만을 떠올렸는데 영등포에도 이렇게 많은 분이 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 대한 동경만을 가진 타지역 사람들, 외국인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면 자기들이 상상했던 이미지와 이곳이 같은 서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쪽방촌에서 걸어서 불과 3분 거리에는 젊은이들과 유혹으로 넘쳐나는 변화가와 백화점,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데 이곳과 대비되는 모습이 너무 이질적이라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영등포 로터리 쪽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차가 뽕뽕 다니는 차도 옆에서 먼지 가득한 이불을 머리끝까지 싸매고 누워계시던 할아버지에게 빵과 우유를 드렸더니, 그 할아버지는 그것을 받아 드시다가 울먹이시고는 우리에게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살 바에는 화장터에 가는 게 낫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그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안아드리는 것뿐이었지만 오랫동안 거리 생활을 하신 할아버지의 때 묻은 패딩과 그 냄새를 견디면서 안아줄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 리스도의 발자취를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동안 나의 지평은 너무나 얇았고 내가 알던 세계에만 머물러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전산화하는 작업에 참여해 수많은 환자의 기록을 보며 새롭게 알아낸 점은 대다수의 노숙인 분이 어린 시절 고아였거나 일찍 부모를 여윈 분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IMF 환란을 기점으로 사업이 망하거나 구조 조정되어 무너지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20세기, 기술과 교통의 발전 가운데 쌓아 올리다가 무너져 버린 시대의 고통을 마주하며,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성한 몸을 가진 나는 이 모든 고통을 빠르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봉사하고 있는 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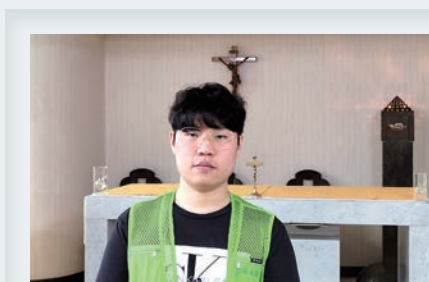


람일 뿐이지만, 그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치유와 위로에 집중하며 어떻게 적절하면서 동시에 인류 애적인 현신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온종일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두가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의 능력으로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이곳, 요셉의원에서 보낸 시간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하 생략. 전문은 요셉의원 페이스북(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에 수록] +

○.....○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채명주(바오로) 서울대교구 신학생

제가 요셉의원을 처음 알게 된 건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실린 선우 원장님의 진료 사진 덕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은 여러 환자를 진료하시면서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당시의 제게는 이질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신학생이 되어 요셉의원에서 실습을 하게 되어 설렘과 기쁨을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제게 주어진 과제는, ‘새로움과 마주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소심하고 말주변도

없었던 저는, 새로 만나게 된 많은 선생님들과 환자분들을 보면서 낯을 가리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저희와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저는 요셉의원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과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분을 위해 새 옷을 직접 입혀드리고, 동상으로 인해 손발이 검게 변한 환자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드레싱과 진료를 도와드리며, 오시는 분 한분 한분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 안에서 저는 주님의 향기를 느낀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벽을 허물고 다가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지만 이곳 영등포에 와본 것은 이번 실습이 처음입니다. 그런 제게 영등포에 대한 이미지는 냄새로 다가옵니다. 처음 역에서 내려 병원을 오는 길에 맡은, 무언가 형언할 수 없었던 냄새. 그리고 쪽방촌으로 도시락 나눔을 가져나 청소를 도와드리러 가면서 맡았던 쪽방촌의 냄새. 이것이 불쾌한 냄새가 아니라 이곳 사람 사는 공동체의 향기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냄새가 향기가 되고, 불편함이 익숙함이 되고, 부담스러웠던 만남들이 일상이 되면서 이곳의 모습도 어느 샌가 제 사진 속 가족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제 안에 올라온 작은 변화. 그것은 병원이자 누군가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곳이 저를 변화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습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제 삶, 제 성소는 이제부터 시작이기에 이 변화의 바람을 타고 더욱 큰 나무를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이곳에 오시는 많은 분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개월의 시간.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풍성함이 제게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도 전해졌기를 바라며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전문은 요셉의원 페이스북(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에 수록] +

쪽방촌 향기

“딸과 함께 봉사하고, 함께 보람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중학생이 된 딸이 아빠가 진료하러 다니는 병원이 요셉의원이라고, 설립하신 원장님이
도덕책 교과서에 나왔다면 요셉의원 진료 가는 걸 엄청나게 칭찬하더니, 최근에는 봉사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나중엔 딸과 함께 봉사하며 아빠가 느끼는 뿌듯함과 보람을 같이 느끼게 하고 싶다.

요셉의원에서 처음
진료를 시작한 날은
2009년 봄이었다. 당
시 정형외과 레지던트
였던 나는 바로 위 연
차 선배의 권유로 금요
일 저녁에 진료를 나오
게 되었다. 잠도 못 자
며 힘들게 일했던 당
시 요셉의원에 진료 보
러 가는 것은 공식적으
로 오프(휴무)를 한 번 더 나갈 수 있다는 달콤한 유
혹이었다. 그런데 영등포역 부근 요셉의원까지 가
는 길이 왜 그리 힘들고 오래 걸리던지, 지하철에서
졸다가 진료시간을 못 맞추고 지각하는 일이 다반



노연태

본원 정형외과 봉사의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수부 정형외과 과장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뿌듯한 그런 기분으로 집에
가곤 했다.

이후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어 내 환자를 보고 수
술을 집도하고 아이도 낳고 키우면서 나름 열심히

본원 노연태 정형외과 봉사의
는 요셉의원 진료를 적극 지지
하는 딸의 성원에 힘입어 기쁘
게 봉사를 나오고 있다.

사였다. 하지만 환자
분들은 진료 대기가 길
어져도 화를 내지 않았
고, 당시에는 한 환자
진료에 시간이 오래 걸
려도 모두 기다려 주시
면서 진료가 끝나면 항
상 고마워하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인지 요
셉의원 진료가 끝나면

봉사자 코너

시창군 영상의학팀 · 송보경 임상병리팀 부부 봉사자

“요셉의원 봉사하는 날은 데이트 하는 날이지요”

본원 영상의학팀의 시창군 봉사자(49·방사선사·
서울병무청 영상의학계장)와 송보경 임상병리팀 봉
사자(임상병리사)는 매월 마지막 화요일 저녁이면
퇴근 뒤 함께 요셉의원으로 봉사를 나온다.

“마침 둘 다 서울병무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요
셉의원 가는 날은 데이트 하는 기분으로 가능하면

함께 가서 함께 퇴근합니다.
아이들도 이날만큼은 스스로
저녁을 챙겨먹고 알아서 할 일
들을 해요.”

요셉의원 봉사는 남편 시창
군 방사선사가 먼저 시작했다.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첫 봉

사를 나온 뒤 올해로 11년째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요셉의원에서 먼저 봉사를 하던 직장 동료가 어
느 날 일이 생겨 한 차례 대신 봉사를 해달라며 부탁
겸 소개를 하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재능 나
눔이라서 고민하지 않고 선뜻 승낙했습니다.”



살고 있던 중 우연히 찾아본 요셉의원 홈페이지에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신경외과 선생님이 진료 봉사를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 옛날 생각도 나고, 당시 근무하던 병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시기여서 다시금 봉사 의욕이 샘솟게 되었다. 그래서 요셉의원 진료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 2019년, 첫 진료 후 딱 10년 만이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병원 생활이 바쁘고 수술이 늦게 끝나거나 하면 진료시간에 지각할 때가 아주 가끔 있지만 예전만큼 자주 늦지는 않는다.

요셉의원에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은 항상 매우 고맙다고 감사해하면서 진료실을 나간다. 파스한 장을 받아 가며 고마워하는 분들,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무릎 주위 근력강화운동 방법을 알려드리자 감사해하는 모습을 자주 접한다. 정형외과는 수술이나 치료가 끝나면 환자가 더 이상 병원에 안 오게 되는 경우가 다른 과들에 비해 매우 많다. 그동안 근무했던 병원들에서도 진료실에서의 마지막 인사 “건강하시고 다치지 마세요. 아플 때 다시 오세요” 등의 인사를 주고받으며 고마워하시는 분들은 봤으나 진료 행위 자체를 고마워하시는 분들은 요셉의원에서도 같이 의료 봉사를 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요셉의원에서 진료할 때도 평소와 같이 열심히

진료하려고 하고, 내가 아는 것들을 환자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생활은 나름 바쁘고 힘들다. 숙식을 병원에서 해결해야 했던 레지던트 시절 때만 큼은 아니지만, 수술을 하고 외래를 보고 입원환자를 치료하고 하는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가끔 있다. 의사가 되면서 처음 가졌던 다짐은 환자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며,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었지만, 반복되는 병원 생활에 지치고 힘이 들면 처음 가졌던 마음을 더러 잊어버리게 된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주, 더 많이 초심을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요셉의원에 와서 진료할 때, 아주 작은 것에 크게 감사해하면서 나가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평소보다 뿌듯함과 보람을 더 많이 느끼고, 의사 시작할 때 가졌던 다짐을 다시 일깨우는 것 같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초심을 잊고 행동했던 요즘의 내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마음을 다잡아 본다.

지난해에는 중학생이 된 딸이 아빠가 진료하러 다니는 병원이 요셉의원이라고, 설립하신 원장님이 도덕책 교과서에 나왔다고 요셉의원 진료 가는 걸 엄청나게 칭찬하더니, 최근에는 봉사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나중엔 딸과 함께 봉사하며 아빠가 느끼는 뿌듯함과 보람을 같이 느끼게 하고 싶다.+

아내 송보경 봉사자는 남편의 권유로 나오게 됐다. 마침 직장에 제출할 ‘봉사 증명서’가 필요하던 차에 고민을 간단히 해결하게 됐다. 송 봉사자는 “새로운 곳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어색하기 마련인데, 먼저 시작했던 남편 덕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고, 같은 곳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부부 사이에 공감대도 형성되고 유대감이 생겨서 좋다”고 말했다.

본원은 노숙인이나 쪽방촌 주민들이 주로 찾는 곳이어서 혹시 봉사하는 중에 불편한 점은 없을까? 송 봉사자는 “특별히 힘든 점은 없다”고 답한 반면, 시 봉사자는 “전에는 술냄새를 풍기거나, 겨울에 냄새 나는 옷을 잔뜩 끼어 입어 촬영하려고 옷을 벗기



부부가 평소보다 집에 늦게 들어가면 쉼쭈해 하는 자녀들도 요셉의원 봉사 다녀 오느라 늦는 날에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준다. 세 자녀와 함께.

느라 애를 좀 먹었었다”며, “요새는 냄새나는 분은 1층에서 목욕시키고 옷도 갈아입혀 올려보내기 때문에 잘 못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일할 때보다 요셉 의원에서 일할 때가 보람은 더 크다.

“검사 받는 환자분들이 촬영에도 협조적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하세요. 자세가 잘 안 나오면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두 봉사자는 부부가 함께 봉사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송 봉사자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책이 있는데, 다른 일정으로 평소보다 집에 늦게 들어가면 조금은 썰쭉해 하는 아이들도 봉사 다녀오느라 늦는 날에는 너그럽게 이해를 한다”고 귀띔했다.

각각 고교와 중학, 초등생 자녀 2녀1남을 둔 부부는 자



시 봉사자는 “환자분들이 감사 인사를 많이 하시고, 촬영 자세가 안 나오면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셔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녀들과 함께 나들이 겸 봉사체험을 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산에 가서 쓰레기줍기를 하거나 한강변에서 쓰레기 나뭇가지 치우기, 수달집 만들어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송 봉사자는 “저도 시작할 때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진 않았지만, 막상 해보면 마음 깊이 느껴지는 따뜻하고 뿌듯한 무언가가 있다”며,

“나 스스로 무언가 하고 있구나 라는 삶의 원동력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시 봉사자는, 재능 기부를 하는 일이 보람이 있는데다 ‘요셉의원 저녁 밥이 맛있어서’ “앞으로도 봉사를 계속하고, 나중에는 퇴직 후 직원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환자스토리



사고로 몸과 마음 망가졌던 김영준 환자

“전기기사 자격증 따서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립니다”



하지만 ‘60세 이전에 꼭 전기 기사 자격증을 따서 남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희망만은 버리지 않고 있다.

“8년 전 일하면서 전기 기사 자격 시험공부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탓인지 이가 여러 개 빠져버렸어요. 그러자 얼굴 모양도 흉해지고, 발음도 잘 안돼 면접도 떨어지면서 취업이 안되더군요.”

당시 그는 음식점 사업을 하다 접은 뒤 30대 중반에 폴리텍 대학을 나와 전기기능사 자격을 갖고 몇 군데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었다. 그러나 직장을 못 구하자 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 허드렛일을 했다. 그때 다른 동료의 소개로 본원을 알게 돼 2017년도에 본원 치과에서 틀니를 장착할 수 있었다.

이게 본원과의 첫 번째 인연이었다. 두 번째는 산업 안전사고로 변변한 보상도 못 받고, 다니던 용역회사에서 쫓겨난 뒤 석달 가량 폭음을 한 뒤였다.

“2018년 8월 성남의 모 아파트에 전기반장으로 파견돼 일을 하고 있을 때

서울 근교에 사는 김영준 씨(57)는 군 입대를 거쳐 사회에 나온 뒤, 사업에 실패하고 두 차례나 큰 사고로 다치는 등 굴곡진 삶을 살아왔다.



였어요. 당시 태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현관 로비에 빗물이 차 누전이 됐어요. 이를 고치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머리를 일곱 바늘 꿰매고 4,5번 요추가 망가지는 중상을 입었지요.”

문제는 소속 용역회사의 대응이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용역회사 측에서는 위로 전화 한 통도 없더니 입원 10일째 되는 날 ‘출근 안 하면 자르겠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만 덜렁 보내더라는 것. 그래서 ‘큰 일 난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치료비를 내고 퇴원한 뒤 회사에 나갔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물에 잠기자 아픈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 아래로 내려가 물을 퍼내다 그만 다시 허리를 다치고 말았다.

“회사 측에 허리를 다쳐서 입원했다가 다시 복귀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대기발령을 내더군요. 25일만 있으면 1년 근무 퇴직금을 타는데, 그걸 안 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고용지원센터에 얘기하자 처음 다쳤을 때의 입원 치료비 등을 적당히 받는 걸로 하고 합의를 보는 걸로 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석달 동안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잘 안 먹던 술만 무한정 들이켰어요.”

온 방이 소줏병으로 가득 차 있던 어느 날, 그는 또다른 내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른바 유체이탈이라고 할까.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어 일주일 동안 술을 안 먹고 참다가 요셉의원이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찾

아갔습니다. 그때가 2019년 말이었습시다.”

본원 간호팀에서는 김 씨의 간 수치가 3000대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이 정도면 거의 죽는 수준이라며 보라매 병원으로 전원시켜 3일 간 입원 치료를 받게 했다. 이어 다시 은평병원으로 옮겨 3개월 치료를 받고 2020년 2월 말에 퇴원했다. 코로나가 한창인 때라 허리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활동도 어려워지면서 우울증이 겹쳤다.

“1년 정도 집에 있다 다시 요셉의원에 갔더니 간호사님이 왜 지금 왔냐며 야단을 치시더군요. 아무런 희망이 없던 터라 요셉의원에 오는 게 한 줄기 희망 같았어요. 사실 그동안 염산 두 병을 사놓고 먹고 죽자는 생각도 했었어요. 지난해 초에 또 큰 맘 먹고 요셉의원에 들렀더니 간호사님이 왜 이렇게 뜸했냐, 어디서 치료는 받고 있느냐며 반갑게 대해주시더군요.”

그는 “이렇게 대화로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하고 감사함을 느끼며 마음이 열려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뭔가 목표를 정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라는 그는 안전관리 중간관리자로 있을 때인 2013년도에 ‘전산세무회계자격증’도 딴 적이 있었다.

김 씨는 “그동안 요셉의원에서 치료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봉사자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고, 60세 이전에 꼭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서 제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도 할 생각”이라는 희망을 나타냈다. 그런 그의 다짐을 들으며, ‘염산 두 병은 꼭 버리시라’는 말을 전했다. +

후원의 손길



가장 뜻 이어 기부와 후원 계속하는 박승희 후원자

“남편 유언 따라 남편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후원합니다”



나시오) 씨. 그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남을 돕는 후원과 기부에는 주어진 소명처럼 심혈을 기울였다. 30년 전 월세방에 살 때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주머니를 털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모으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보겠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13년 전 50대 중반 나이에 그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꿈을 가족에게 안겼다. 선종 전 자신의 유산 90%를 가난하고 소외된 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양복 디자인을 배운 뒤 온라인 유아용품 사업가로 성공했던 고 김동구(이

들을 위해 쓰라는 유언을 남기자 아내 박승희(크레센시아) 씨가 지금까지 그 유지를 실천하고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올해 13주기가 됩니다. 지난 5월 11일 남편 생일날 딸과 함께 요셉의원에 찾아가서 기부금을 전달하고 왔어요.”

24평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는 아내 박 후원자에게 1천만 원은 적지 않은 액수다. 하지만 그 돈은 자신 것이 아니라 남편 몫이어서 남편의 뜻대로 여러 곳에 기부와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편은 투병하기 전부터 기부금 보내는 곳이 여러 곳이었어요. 직원 5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활비로 한 달에 400만 원만 건네주고 어려운 학생 학비 등 기부금으로 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남편 선종 2년 뒤인 2012년 본원에 5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던 박 후원자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매달 후원금을 보내오고 있다.

박 후원자 역시 자립 의지가 강해 스스로 체인점 사업을 운영했었고,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를 졸업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믿고 선종 전에 ‘당신은 버는 것이 있으니 내가 남긴 재산 중 10%만 딸에게 주고 나머지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당부를 한 것.

남편이 사업을 접고 시골에 내려가 선종 전까지 27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할 때 아내 박 후원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곁을 지켰다.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는 남편의 유지를 실천하고 있는 박승희 후원자(오른쪽) 부부의 젊은 시절 모습.

“암 투병을 하면서 몹시 고통스러울 텐데도 제게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는 곁에 있는 저를 보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더군요.”

딸 김진영(가밀라) 씨는 “아버지가 유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써달라고 결정했다고 들었을 때 ‘저희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만큼 기부하고 가십시오...’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 그

때의 아버지 속 마음을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아버지 뜻을 이어 나가기에 아직 부족하지만, 적어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어머니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3년 4월~5월)

- 가경민 ●강동근 ●강민아 ●강승태 ●강연태 ●고귀한 ●권미용 ●권병규 ●권희철 ●기정아 ●김경옥 ●김경옥 ●김금재 ●김기용
- 김명신 ●김미현 ●김민주 ●김봉휘 ●김선영 ●김성현 ●김수경 ●김영덕 ●김영례 ●김영재 ●김용균 ●김용완 ●김우현 ●김유리
- 김은영 ●김은주 ●김이진 ●김재리 ●김재훈 ●김주란 ●김지은 ●김진우 ●김해인 ●김혁곤 ●남예준 ●남오승 ●남주현 ●명지안
- 목허균 ●문종순 ●민경화 ●박기열 ●박민규 ●박상준 ●박서현 ●박선용 ●박성한 ●박수정 ●박연주 ●박영민 ●박온화루시아
- 박윤석 ●박일민 ●박일영 ●박진권 ●박진아 ●박태남 ●박하울 ●박형순 ●방규리 ●배석준 ●배수영 ●백동현 ●백병주 ●백수현
- 백승훈 ●백원규 ●변의용 ●서동수 ●성남기 ●송인관 ●송현서 ●신애숙 ●신우섭 ●신하늘 ●신희철 ●심성혜 ●안용찬 ●안유진
- 양인석 ●오병일 ●오병준 ●오석진 ●오세원 ●오수연 ●오시은 ●오영애 ●오자영 ●오창원 ●이정광(울산항) ●유정희 ●윤문희





●윤성민 ●윤정원 ●윤희수 ●윤희준 ●이가희 ●이경수 ●이기화 ●이모범
●이서하 ●이설자 ●이소연 ●이수연 ●이순례 ●이슬기 ●이승민 ●이승희
●이영림 ●이영우 ●이영환 ●이옥정 ●이용우 ●이용환 ●이우석
●이원형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정찬 ●이정훈 ●이중호 ●이지욱
●이지혜 ●이찬희 ●이창걸 ●이태희 ●이현규 ●이혜영 ●임도현 ●임숙형
●임영찬 ●임유진 ●임정은 ●임정환 ●장기성 ●장익한 ●전동균
●전순자크리스티나 ●전예지 ●정류영 ●정상범 ●정성열 ●정소미
●정재원 ●정지운 ●정진교 ●조규섭 ●조면행 ●조성대 ●조순남 ●조용만
●조정석 ●조정현 ●조현석라파엘 ●조혜린 ●주세원 ●주옥현 ●주원식
●주은성 ●천정수 ●최근수 ●최서영 ●최 솔 ●최원식 ●최유미 ●최인삼
●최정난 ●최준영 ●최 흥 ●최희진 ●팽혜전 ●한경수 ●한승원 ●함보혜
●함수정 ●함현민 ●허승일 ●현상훈 ●황우선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2023년 4월~5월)

●무타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3년 4월~5월)



●강신걸, 김선화(피스오브헤븐) : 유기농롤케익, 수제 쿠키 각 1상자
●김 * 의(파주시) : 쌀 10kg ●김경숙 레지나 : 쌀 60kg, 두유 192팩, 생수 2리터 30병 ●방송통신위원회(김성준) : 죽 40만원 상당 ●이지영 : 쌀 9kg
●익명 : 쌀 20kg ●조현상 : 비타500 1상자 ●토마스의집 : 계란 3판, 떡 1상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제일동 : 과일 2상자 ●홍기옥 : 쌀 20kg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2023년 4월~5월)



●길두섭(토마스 아퀴나스) : 옷 3상자 ●김 * 숙(천안시) : 옷 1상자
●김 * 의(파주시) : 신발 1켤레 ●박은경 : 옷 1상자 ●안 * 남(진주시) : 옷 1상자
●여의도성모병원 간호사회 : 옷 30상자 ●이 * 익(송파구) : 옷 2상자 ●이유진 : 옷 1상자 ●정 * 교(은평구) : 옷 1상자 ●최 * 영(부산) : 의류 잡화 1상자
●클래식프롬 : 옷 1상자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2023년 4월~5월)



●하나제약 : 뉴피오 외 32종, ●'바보의 나눔' 다이어리 외 2종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2023년 4월~5월)



●강신걸, 김선화(피스오브헤븐) : 마스크94 50매 ●김철규 : 서적 30권 ●배관 랜드 : 마스크94 900장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최삼욱(정신건강의학과)
권인순(내과)
최덕례(내과)
안규중(피부과)
조소연(피부과)
김영중(한의과)
이주영(한의과)
최원석(치과)
- 약사 : 하현주
- 간호사 : 이석희 고정희 최호정
최금묘(사회사업실 가정간호사)
- 방사선사 : 나주아 배민영
- 일반 봉사
이애자
(사회사업실 도시락 나눔)
조운서(치과)
약국
(동국대 6명, 숙명여대 10명,
이화여대 4명)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개인

-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 토마스의 집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3년 4월	1,344 명
2023년 5월	1,261 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3년 5월 말 현재)

737,092 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2023.4~5.



김다솔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장학생 교육 프로그램 신설

필리핀요셉의원
의 주요 사업은
환자 진료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급식이지만
설립 초기부터 청
소년 지원 사업인
장학프로그램을



대학생 장학생들이 시간을 내 고교 장학생들
에게 영어와 수학 등 주요 학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마련해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
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장학생 선발은
개원 초기인 2012
년부터 설립자 최
영식 마티아 신부
로부터 시작돼 2
대 원장 장경근
신부를 거쳐 현재
까지 꾸준히 진행

되는 중이다. 설립 초기부터 약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았으며, 2023년도에

도 현재 60여 명의 청소년들
이 장학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장학생
들에게는 매월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야외 견학 및 다양한 자체 활동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여건상 대학 진학률은 높지
않았다. 대학등록금 마련이 어렵고, 지역
특성에 비추어 대학 입학을 위한 기초적인
공부에 집중하기 힘든 환경이어서 전체 요
셉의원 장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0~30%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
에서 필리핀 요셉의원은 일차적으로 장학생



복음 묵상

‘빛과 소금으로 쓰이기’

다만 요셉의원은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는 분은
스스로가 아니라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봉사팀이 왔을 때의 일입니다. 봉
사팀이 오면 요셉의원에서 진료를 하기도 하지만 현지
본당에서 외부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미리 사전 조율된 본당에 의료팀과 함께 도착했
습니다. 그런데 본당 입구에 한국에서 의료팀이 온다는
플래카드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반
적인 현수막이었다면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쳤겠지만
문제는 저희 필리핀 요셉의원이 위치한 말라본 시의 시
장 사진도 나란히 붙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전에 저희는 시장과는 일체 의료팀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도 없고, 지원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의료팀의 봉사와 후원자 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봉
사였지만 관련도 없는 시장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보고 있자니 의료 봉사 시작도 전에 마음속에서 파문

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화룡점정’은 시
장이 직접 봉사 현장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수행원들을
줄줄이 대동하고 치과 봉사가 한창이던 현장에서 의료
기구들을 함부로 들고 사진을 찍는가 하면 환자들을 살
펴보는 척하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그리
고 저도 그 자리에서는 하하 호호 웃으면서 시장을 맞
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사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봉사자분들이 정치
적 이용 대상이 되시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애써서 지원해 주신 후원자 분들께 돌아가야 할 감사를
애먼 사람이 가로채는 것 같아 무척이나 속상했습니다.

의료봉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많은 요소는 모두
환자들과 의료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약 목록을 작성
하고 구매하고, 의료기기들을 손보고 교통편을 배차하
고 장소를 선정하는 것까지 모두 환자를 위한 것이었습
니다. 그러나 시장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본 순간
환자와는 상관없는 온갖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묵상 안에서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가장



가난과 빈곤을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대학에 진학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라 보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들의 전체적인 학력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선발 당시 학생들이 제출한 학교 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장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교육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파악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사진을 꾸려 초·중·고생을 위한 수학 영어 기초반을 개설하였다.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늘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또 앞으로는 직업 체험이나 보건 위생교육, 견학 등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기초 교육 수준과 더불어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신들보다 어린 초·중·고생들을 가르치는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 중 대학을 진학하는 3명은 이미 대학생 교사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육 과정과 교사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필리핀요셉의원 자체 치과 진료 재개

5월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현지 치과 의사의 정기 진료를 재개했다. 치과 환자가 많았지만 그동안은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에서 2~3개월 간격으로 방문한 치과봉사 의료진

의 비정규 진료로만 이루어졌었고, 현지 의사에 의한 치과 진료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현지 치과 선생님 (Dr. Susan Co)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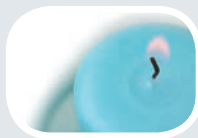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했는가?’ ‘우리의 본래 역할은 무엇인가?’

다른 많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는 모두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치유하고 아픈 사람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단순히 수동적이거나, 다른 이들이 보거나 느낄 수 없도록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산 위에 자리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고,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으며 소금은 본연의 맛을 내어야 한다’(마태 5,13-16 참조)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드러난 빛과 소금을 향해 많은 이들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 들마저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본의는 아니었지만 시장이 와서 저희 의료봉사 사진을 찍어 가준 덕분에 의사 선생님들의 봉사와 후원자 분들의 후원이 더욱 크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요셉의원의

이름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요셉의원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속의 명예는 누가 가져가든지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 (마르 9,40)일 것인데, 심지어 우리의 이름에 편승하는 사람이 우리를 박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만 요셉의원은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는 분은 스스로가 아니라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환대로서 환자를 맞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며 가난한 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나아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 밖의 너무 많은 것에 신경쓰는 것은 결국 우리 일 밖의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들 뿐입니다. 곧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을 믿고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뿐입니다. ✚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기 치과 진료가 다시 시작되었다. 매주 수요일 하루 약 20여 명의 환자가 방문해 발치와 스케일링 위주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많은 환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오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는 주변 분당과도 협력해 정기적인 치과 진료를 꾸준히 해 나갈 예정이다.

7월, 가톨릭의료협회 봉사팀 방문 진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하반기에는 한국에서 몇 개 의료팀이 봉사를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월 1일 ~8일에는 가톨릭의료협회 해외의료봉사팀

방문이 확정돼 있다. 가톨릭의료협회 봉사팀은 코로나 이전 매년 이곳에서 방문 진료를 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 간 중단됐었다. 모두 5일 일정으로 순회 진료를

할 예정이며, 이들은 요셉의원에서, 나머지 3일은 각각 팔로오칸 교도소, 노동자 성요셉 본당, 산바르톨로메 본당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찾아가는 진료를 통해 그동안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톨릭의료협회 해외봉사팀은 필리핀 요셉의원의 주요 의료봉사 단체다. 오른쪽 사진은 이 협회 의료봉사진의 진료 모습.

+ 2023년 4월 ~ 5월 신규 후원회원(166명)

● Flora ● PAK HEESOO ● 강경애 ● 강미리 ● 강우식
● 강윤경 ● 고재현 ● 고현순 ● 구예리 ● 권석남 ● 권성훈
● 권윤미 ● 그리스도 ● 김간동 ● 김건우 ● 김광섭 ● 김기순
● 김두섭 ● 김미나 ● 김민아 ● 김선옥 ● 김성민 ● 김소래
● 김수연 ● 김연옥 ● 김영종 ● 김영주 ● 김영희 ● 김예지
● 김옥자 ● 김요완 ● 김윤선 ● 김이나시오 ● 김인자
● 김정애 ● 김정은 ● 김지수 ● 김채은 ● 김하나 ● 김해숙
● 김형준 ● 김훈재 ● 나준균 ● 노현미 ● 민경민 ● 박경실
● 박미성 ● 박미숙 ● 박시현 ● 박인자 ● 박장출 ● 박정식
● 박주원 ● 박지원 ● 박태흥 ● 박혜성 ● 박화선 ● 배정호
● 백숙남 ● 백승우 ● 백용준 ● 변원복 ● 석훈희 ● 선우선
● 성은희 ● 송규리 ● 송미숙 ● 송승희 ● 송유순 ● 송향진
● 송희승 ● 송희일 ● 신대식 ● 신상완 ● 안준희 ● 양성현
● 양수복 ● 양재만 ● 엄희섭 ● 여로즈마리 ● 엄경숙
● 오금수 ● 오윤재 ● 오정현 ● 오창섭 ● 요안나 ● 우희영
● 원유창 ● 원태희 ● 유영순 ● 유일연 ● 유풍형 ● 유혜정
● 윤지원 ● 이강복 ● 이고은 ● 이광혁 ● 이나영 ● 이미희
● 이민성 ● 이선옥 ● 이양희 ● 이연옥 ● 이영주 ● 이용자
● 이용희 ● 이유진 ● 이은옥 ● 이재원 ● 이재홍 ● 이정미
● 이정숙 ● 이준원 ● 이지혜 ● 이진영 ● 이태윤 ● 이호주
● 이흥석 ● 임윤정 ● 임은빈 ● 임정수 ● 임정하 ● 장만규
● 장성봉 ● 장일선 ● 장정윤 ● 전수경 ● 전춘자 ● 전춘희
● 정경호 ● 정명자 ● 정명화 ● 정명훈 ● 정수영 ● 정숙
● 정운경 ● 정하원 ● 조경희 ● 조남화 ● 조명자 ● 조순희
● 조승빈 ● 조현경 ● 진소현 ● 진현정 ● 채갑수 ● 최경희

● 최귀현 ● 최동범 ● 최영희 ● 최태순 ● 하서용 ● 한경원
● 한승주 ● 함애자 ● 허유경 ● 허은희 ● 현승빈 ● 홍지선
● 황미옥 ● 황성빈 ● 황성혁 ● 황수호 ● 황순철 ● 후원

+ 2023년 4월 ~ 5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972명 ● 급식 8,446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2023년 5월 현재)

● 진료 92,296명 ● 급식 478,732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is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미사
안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3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

2023.4~5.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춰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양은오 체사리아 수녀가 보내온 사연

가난한 아프리카 신학생들에게 서적 구입비 지원 남아공 성 요한비안네 신학교 학생 109명 대상



남아공 프리토리아 요한비안네 신학교에서 열린 '작은 서원' 모습. 아래 사진은 신학생들이 책을 골라 넣는 개인 비닐봉지.

만델라를 떠올리게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은 대한민국 12배 크기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남아공은 높은 빌딩과 잘 닦인 도로 등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모습과는 아주 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흑인들은 타운십을 중심으로 살며, 일하러 가기 위해 새벽같이 집을 나섭니다.

저는 이 지면을 통해 신학교에서 만난 신학생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아공은 5개의 대학교와 23개 교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교구의 신학생들은 프리토리아의 성 요한비안네 신학교에서 철학과 신학 과정을 거칩니다.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성바오로딸수도회 수녀로서, 저희는 신학생들이 필요한 책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학기마다 아주 많은 양의 책을 준비해서 신학교를 방문합니다. 이번에도 1,992종류의 책을 준비했으니 그 책을 강의실에서 정리하는 데



만도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신학생들을 서원으로 오게 하지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거리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흘간 신학교에 작은 서원이 열립니다.

가끔은 가난하기에 놓칠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 교구에서는 신학생들이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정도이니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비닐봉지에 자기 이름을 써놓고는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와서 신중하게 책을 고르고 또 고릅니다. 한도 액이 초과되어 신학생이 미처 구입하지 못한 책들은 따로 저만의 목록을 만들어 다음을 기약합니다. 이리다 보니 신학교에 가지고 갈 책을 좀 줄이자고 마음먹지만, 매번 책 박스는 더 늘어만 갑니다. 한 신학생이, '수녀님들은 주님의 향기입니다. 책의 향기입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큰 소리로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이 얼마나 좋던지요.

지난번 방문 때는 많은 교구가 신학생들을 후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책만 만지작거리다 돌아가는 신학생들이 많아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신학교에서 미사와 성무일도 때 신학생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훗날 이 신학생들이 사제가 되어 봉헌하는 미사는 또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성바오로딸수도회 양은오 체사리아 수녀 ✚

☞ 양은오 수녀님에게 지원 예정 : 남아공 성 요한비안네 신학교의 신학생 109명에게 1인당 15만원(75,000원X2회)의 신학서적 후원 예정.
(총 16,350,000원)



➔ 남아메리카 페루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박호숙 로사 수녀가 보내온 편지

“아이들에게 글공부를,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르볼레다 사막산 빈민촌 아이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글을 모르는 페루 빈민촌 아이들에게 성경읽기는 글을 배우고 읽는 훌륭한 교재가 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반대편인 페루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인보성체수도회의 박호숙 로사 수녀입니다. 많은 꿈을 안고 이곳의 사람들과 함께 성서를 통하여 이들의 가슴에 말씀을 알려 매 순간 더 나은 시간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려 했는데, 팬데믹이 우리의 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처음부터 존재하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페루의 수도 리마 북쪽에 위치해 있는 산타로사 지역의 아르볼레다 마을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인보 공부방과 미카엘 무료급식소, 인보 이동진료소, 영양이 결핍된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영양꾸러미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리마에서도 이름난 빈곤 지역 중 하나로, 모래사막과 사막산에 둘러싸여 있고 인구는 약 6,000명 가량 되며,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이들이 살고 있는 도시 빈민촌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가 없어 점심을 챙겨줄 수도 없고, 또한 집에서 숙제를 해야 하는데 부모들이 돌볼 수 없기에 아이들은 이곳에 와서 따뜻한 점심을 먹고, 학교 숙제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점심을 잘 챙겨 먹다보니 방치되어 있던 빈혈이나 다른 병도 호전되고 있고, 일을 하는 부모들도 마음놓고 일할 수가 있어서 부모들이나 아이들,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제르손이고 초등학교 5학년이며 집은 아주 가난하지만 밝고, 아주 개구쟁이고, 예쁜 아이입니다. 제가 2021년에 이곳에 소임을 왔을 때는 팬데믹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문은 닫혀 있었고 공부방도 닫혀서, 우리는 모래사막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레미와 제르손 형제를 알게 되었는데, 이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형인 제레미는 초등학교 3학년, 동생인 제르손도 같은 학년이었는데 팬데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레미와 제르손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2022년이 되어 학교 문이 열렸지만 형제들의 글공부에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결과 조금씩 나아져갔습니다.

2023년 어느 날, 아이들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제르손이 성경을 따라 읽었습니다.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제르손이 성경을 읽네요. 다시 한번 읽어봐.”라고 하니 제르손은 정말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요.

이들 형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글을 모릅니다. 팬데믹으로 1년을 쉬 채 갑자기 학년이 올라가버린 아이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매일을 지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 중의 하나라 생각하고 오늘도 아이들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 읽기는 아이들에게 글을 알게 하고 읽게 하는 데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오늘도 아이들은 큰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매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나날이지만, 저





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많은 힘을 받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우리 아이들, 페루의 미래를 짊어진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한 우리의 나눔은 계속되며,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발판

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께도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페루 아르볼레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인보성체수도회 박호숙 로사 수녀 ✚

☞ 박호숙 수녀님에 대한 지원 : 2019년 12월 13일에 스페인어 성경 450권(\$3,410=4,031,864원)을 후원하였습니다.

☞ 국성회 2023년 5월 지원 내역 : 5월 3일 에라도르 김미옥 마리 스콜라스티카 수녀(성령강림 사도수녀회)에게 공부방 어린이들, 봉사자들, 그 가족들을 위한 스페인어 성경 70권 및 그림성경, 어린이 성인전 등을 지원(\$2,224=3,005,300원)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2023년 4월~5월)

● 고현수 ● 김금재 ● 김낙기 ● 김덕순 ● 김만길 ● 김명숙 ● 김명희 ● 김범준 ● 김병희 ● 김성권 ● 김영추 ● 김영환 ● 김윤순 ● 김진우
● 김현경 ● 김현숙 ● 나삼균 ● 문경호 ● 민영진 ● 박소향 ● 박언빈 ● 박종대 ● 송미경 ● 송보영 ● 신해경 ● 양영실 ● 오세형 ● 오영신
● 윤영순 ● 윤영찬 ● 윤용식 ● 윤창현 ● 이강득 ● 이기화 ● 이미순 ● 이상숙 ● 이상현 ● 이용애 ● 이은행 ● 이장순 ● 이재청 ● 이정석
● 이정희 ● 이종대 ● 이종환 ● 이향희 ● 이현옥 ● 이현창 ● 이현규 ● 이혜순 ● 임한미 ● 장을숙 ● 전대영 ● 정재숙 ● 조용덕 ● 조하영
● 조현순 ● 진석실업 ● 최두혁 ● 최명옥 ● 하금태 ● 허 근 ● 허영숙 ● 홍성실 ● 홍지원 ● 황세희 ● 황태운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2023년 4월~5월)

● 김경식 ● 김원호 ● 나종진 ● 박우준 ● 백성호 ● 서상범 ● 오창선 ● 유경춘 ● 이계호 ● 이문주 ● 임상무 ● 정순택 ● 최광희 ● 최명근
● 최정훈 ● 한정화 ● 익명후원자

+ 신규 후원회원 - 일반(2023년 4월~5월)

● 최이소

■ 2023년 4월~5월 후원금 내역 : 7,809,000원

+ 국성회 후원 방법

1. 지로용지 신청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국민은행	364301-04-106412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2023년 7월 후원회 미사 알림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요셉의원 3층 경당(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교통 :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문래동 쪽 200m

※ 7월 미사에는 아프리카 카메룬 바피아 교구장이신 에마누엘 다 시 주교님이 함께 미사를 집전하실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라.”

| 마태오 9, 13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코올 의존 환자,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5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111-13-04699-8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요셉의원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목욕서비스

시간 월~금요일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

장소 1층 목욕실



법률상담

상담 예약 문의 전화 070-4688-3413
(오후 1시~5시 전화 연결 가능)



영화상영

시간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 아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알코올 의존증 상담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